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구제 추진

일제 당시 제주인 피해자 2852명·피징용자 1만명 오 지사 “‘제3자 변제’ 방안 역사인식 왜곡 우려 도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 구제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금 ‘제3자 변제’ 방안 결정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에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과 관련해 “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만 2852명이고 국가기록원의 피징용자 명부에는 제주출신이 1만 명에 달한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말기(1939~1945년)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1941년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고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징병·징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했다.

지난 2011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신고서를 받은 결과 총 22만6638

건이 접수됐다. 제주도에서는 2890건(군인 423건·군무원 569건·노무자 1847건·위안부 1건·기타 1건·미표시 5건)이다.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 결과 2852건(군인 361건, 군무원 569건, 노무자 1847건, 각하·기각·판정불능 75건)이 인정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츠비시가 운영하는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원폭 투하 등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강제 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해 위령사업,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전범기업과의 모금 협의에 주력하는 등 일본 정부와 전범범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출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결정했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시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했으나 일본 기업은 기금을 출연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오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은 의아스럽다. ‘교육지책’이라고 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방안이자 자칫 미래의 역사 인식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 기폭제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해법은 근본적으로 일제만행에 대한 면죄부이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무력화 시킨 명예스럽지 못한 족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을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4·3 해결 열매 맺는 30년 디딤돌 놓을 것”

제주도의회 4·3특위 출범 30주년 기념 행사 개막 20일~내달 3일까지 기념주간 동안 다채로운 행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아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20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4·3 서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를 주제로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제주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장정언 전 의장을 비롯한 4·3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의 관계자, 도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국민의례, 4·3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사·축사·인사말씀,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촬영, 전시회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년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소명을 다 해낸 선배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필요한 책임을 완수해 ‘열매를 맺는’ 앞으로의 30년 디딤돌을 놓아 가겠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개막식 행사를 마친 후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영령에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보고하고 참배했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출범 30주

년을 맞아 20일부터 4월 3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기념주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로비와 2·3층 연결통로에서 4·3특별위원회 활동사진 전시와 제주대 4·3 학생모임 ‘화동(話童)’의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이와함께 오는 22일 오전 11시에는 제주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대부터 12대까지 역대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4·3특별위원회 활동 강연을 열고 좌담회를 갖는다.

이어 27일 오후 2시에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 내 4·3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하는 20~30대 젊은 세대와 함께 2030 집담회를 개최하고, 29일 오후 7시에는 롯데시네마 아라점에서 4·3유족을 초청해 ‘둘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 상영회를 갖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선제 대응한다

도, 비상대응체계 구축... 피해 우려지역 중점 관리

올 여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인

명피해 우려지역 조사·점검, 방재 시설 정비, 이재민 구호 등 분야별 사전대비 추진대책을 마련한다.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사전대비 전담반을 구성했다.

또한 기존에 관리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89개소) 이외에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취약 경사

지 태양광과 같은 유형을 신규 조사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사전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해 지침서에 반영함으로써 신속한 통제와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월 초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사전대비 실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5월말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2023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축구대회

기간 2023. 3. 30 목 ▶ 4. 2 일 (4일간)

장소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 이호운동장

제주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이벤트 4. 1 (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 이벤트 참여신청 : 관망에서 신청은, 모든 관람객 참여가능

(달려라 슈팅스타)



주경기장 입구에서 펼쳐지는 슈팅스타 이벤트
방글방글 '코끼리'로 톨기 후 골대를 향해 힘차게 슛!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단 팬사인회 이벤트



LIVE STREAMING 제주 MBC TV LIVE 중계 [고등부] 종합경기장

준결승 4월 1일(토) 오후 12시 10분 ~ 4월 1일(토) 오후 2시 10분 ~ **결승** 4월 2일(일) 오후 1시 10분 ~

* 방송 편성 시간은 방송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부 예선·준결승·결승 제주일보 홈페이지 및 YouTube 생중계

* 본 대회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종합경기장내 관람 인원 의 출입을 통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최 제주일보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